현실성 없는 재해보험에 농어민 '두 번 운다'

"일부 작물 보상 못받고 피해액 크면 보험금 수령도 지연"
보장 범위·보상 구조 등 현장 납득하게 조속히 개선해야

나주시 동강면에서 감초를 하우스·스마트팜 시설로 재배하는 김태완(60)씨는 최근 극한 폭우로 수해를 입었다.

김씨는 "시설비와 모종값 등 피해 규모는 억 단위인데 감초는 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피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씨는 "수해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방울토마토 하우스 13동이 침수 피해를 입은 이랑기(58)씨는 "예상 손실이 80억~100억원 정도인데, 피해액이 커 보험금을 받기까지 빨라야 1년"이라고 했다. 그 때까지 어떻게 버텨내야 할 지 암담하다는 게 이씨 설명이다. 이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모든 게 다 보장될 것처럼 설명하지만, 막상 피해를 입으면 각종 세부조건을 들어 제대로 보장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기후변화로 폭우와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데 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2022년 10만 6279가구(1647억원), 2023년 11만2252가구(1864억원), 2024년 12만3242가구(1984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

재해 피해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 수도 2022년 3만5314가구(991억원), 2023년 4만3936가구(1497억원), 2024년 6만2668가구(212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하지만 기후재난 피해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 보장 범위의 사각지대와 현실성 없는 보상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농민 피해가 여전하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 지적이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2025년·76종)과 가입률(2024년·전남 67.2%)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보장품목 제한, 실질 피해와 맞지 않는 보상 단가 등의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우선, 농가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지역손해율이 증가한 것인데 각 농가에게 부담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작물별 보험 기준도 차별화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예농산물의 경우 수확량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병충해에 대한 보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보상 수준이 일반 농산물과 차이가 없는 점 등 현장과 맞지 않다는 부분도 농업인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보험 가입을 해도 작물의 품종별로 보장이 제한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배추·상추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해도 얼갈이배추, 쌈배추, 양배추. 양상추 등 품종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식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보장되는 품목이 30종에 달하지만 전남에서는 이 가운데 23종만이 가입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송어·미더덕·오만둥이·터봇·메기·흰다리새우·방어 등 7종을 키우는 어업인은 전남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피해지원 정책에 대한 농민 신뢰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가입률만 높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해충 꼼짝마 22일 광주시 북구 풍향동 청년회원과 주민들이 폭우 뒤 증가한 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골목길에서 연막 소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공사비 부풀려 190억 정책 대출 태양광 업자 70여명 무더기 기소

저금리 이자에 '2차 이익'까지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190억여원 상당 정책대출을 받은 태양광 발전 업자 7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77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공사비를 부풀린 업(UP)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190억여원 상당의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발전사업자는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자부담해야 할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업자들은 대출의 전 과정을 대행하면서 대출금을 직접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발전소를 가동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저금리 이자만을 납부하며 '2차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의뢰를 받아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태양광발전 업자 60명의 717억원대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경찰 '갑질 호소' 대학원생 사망사건 본격 수사

노트북·휴대폰 등 유품 수거

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진정서를 낸 유족들에게 노트북 등을 제출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광주북부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대학원생 A(24)씨의 휴대전화, 노트북, 연구실 태플릿 PC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유족과 학교 측을 상대로 구체적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은 노트북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연구처에도 A씨가 참여했던 연구과제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학교측은 기본 현황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와 박사(연구교수)를 상대로 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학원장과 학생처장, 인권센터장 등 위원 10명과 실무 간사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A씨는 지도교수와 박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받고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생활관 16층 옥상에서 추락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전남 폭염·열대야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광주와 전남 13개 시·군(나주·담양·곡성·장성·화순·고흥·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신안)에 폭염경보가, 전남 9개 시·군(구례,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목포, 진도) 등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32~35도를 보이겠고,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2~35도가 예상되는 등 한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진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제주항공 사조위, 조종사 과실 찾는 중?

비상상황 대비 훈련 기록·피로도 관리 등 분석 나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제주항공 조종사의 비상상황 대비 훈련과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감독 직무 수행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사조위는 최근 국토부와 제주항공으로부터 사고기 조종사들의 훈련, 교육 업무 기록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사조위는 제주항공이 참사 사고기 기장·부기장에 대해 비상상황에 대처한 훈련과 평가 등을 충분히 실시했는지, 조종사 피로도 등을 관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제주항공을 담당했던 항공안전감독관들의 업무 기록도 사고 전 점검과 시정조치, 개선 권고를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난 1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족들에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사조위는 사고 당시 엔진 자체에 결함은 없었으며 조종사가 더 크게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